

( 투쟁하고 공존하는 숲의 사계 vs 변주와 확장의 원숙한 소설세계 )

차윤정의 《숲의 생활사》, 김영하의 《오빠가 돌아왔다》 선정기

〈출판저널〉 4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회의가 지난 3월 11일 〈출판저널〉 회의실에서 열렸다. 후보도서는 전순옥의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김경일의 《사서삼경을 읽다》, 임지현 외 15명의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김지하의 《탈춤의 민족미학》, 박완서·김점선의 《보시니 참 좋았다》, 이상진의 《한국 근대 작가 12인의 초상》, 최향량의 《요리조리 맛있는 세계 여행》, 다치바나 다카시의 《뇌를 단련하다》, 차윤정의 《숲의 생활사》, 김영하의 《오빠가 돌아왔다》 등 모두 10권이였다.

기자들은 이들 저작의 명료한 메시지와 함의(含意)에 공감하면서 최종 후보를 압축, 《사서삼경을 읽다》,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숲의 생활사》, 《오빠가 돌아왔다》를 깊이 있게 검토했다. 김경일의 《사서삼경을 읽다》는 전작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 값하는 또 다른 문제작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전순옥의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는 이번 연구와 접목될 이후 작업의 가능성이 주목된다는 평가를 들어 선정작에서 제외했다.

기자들은 차윤정 씨와 김영하 씨의 저작 중 1권을 선정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으나, 1권을 선정하는 것만이 이 제도의 최선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출판저널〉은 재창간 이후 연중기획으로 추진해 온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서 처음으로 산림학자 차윤정 씨와 작가 김영하 씨를 공동선정케 됐다.

차윤정 씨의 경우, 산림학이라는 전문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신갈나무 투쟁기》 《차윤정의 우리 숲 산책》 등의 저서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숲을 알려온 저자의 자세가 높이 평가됐다. 앞서의 책이 단면 혹은 개괄적으로 숲을 보고 있다면, 투쟁하고 공존하는 숲의 사계(四季)를 밀도 있게 들여다본 이번 《숲의 생활사》는 저자의 내공이 총합된 역작으로 보아도 좋다.

김영하 씨의 《오빠가 돌아왔다》는 우리 시대에 소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을 각인시켜 준 소설집이다. 기자들은 각기 작품들의 고른 문학적 성취에도 동감했지만, 끊임없이 변주하며 확장시킨 소설세계의 원숙한 면모를 이룬 작가 김영하 씨를 격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출판저널〉에서 처음으로 공동 선정된 두 책과 함께 후보작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바란다. **4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4월 후보도서

-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전순옥 지음 | 한겨레신문사 | 398쪽 | 값 15,000원
-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임지현·이성시 엮음 | 휴머니스트 | 480쪽 | 값 20,000원
- 《탈춤의 민족미학》  
김지하 지음 | 실천문학사 | 366쪽 | 값 15,000원
- 《요리조리 맛있는 세계 여행》  
최향량 글·그림 | 창비 | 94쪽 | 값 13,000원
- 《보시니 참 좋았다》  
박완서 글·김점선 그림 | 이가서 | 168쪽 | 값 9,300원
- 《사서삼경을 읽다》  
김경일 지음 | 바다 | 422쪽 | 값 12,800원
- 《한국 근대 작가 12인의 초상》  
이상진 지음 | 옛오늘 | 342쪽 | 값 12,000원
- 《뇌를 단련하다》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 이규원 옮김 | 청어람미디어 | 396쪽 | 값 13,000원

